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동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국가 재건을 위하여 III

(느헤미야 9장 38절 - 10장 39절)

오늘날 대학에서 심리학과가 대단히 인기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정신적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정신과를 찾기도 하고 카운셀러의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가 변화를 진정으로 원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치 않을 때 변화는 영원히 어려운 문제일 뿐입니다.

영적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1. 부흥의 3단계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지도력 하에 예루살렘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부흥이라 부릅니다. 부흥은 영적 삶에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이상 이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들었다

영적 지도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지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 ① 죄를 깨우치고 슬퍼했습니다.
- ② 율법을 놀라워했습니다.

(2) 율법을 읽고 공적인 회개를 했다

공적 기도가 있는 후 하나님의 주권 행사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3) 언약을 하므로 공적 변화가 있었다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다” (9:38).

4종류의 사람들이 언약에 인을 쳤습니다.

- ① 느헤미야, 느헤미야의 비서장 격인 시드기야
- ②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 ③ 레위인들
- ④ 이스라엘의 귀인들

2. 언약의 특성

변화를 위한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심어린 변화는 저들이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모든 것보다 우선했습니까?

결혼, 사업, 주일성수, 이웃 사랑, 소득의 십일조 등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성경의 표준대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 변치 않고 이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때 이루어집니다.

(1) 성경의 권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요구를 바르게 이해했습니다.(28 - 29절)

(2) 성전의 중요성 (30 - 39)

백성들은 성전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했습니다.

(3) 백성의 책임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 했습니다.

3. 언약의 내용

(1) 가족 문제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을 것을 언약했습니다. 이는 종족 문제라기보다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2) 안식일을 지키다

안식일을 지키는 창조신앙의 고백과 천국신앙의 고백입니다.

(3) 성전세를 의무화 했다

이것은 예배 우선권을 말합니다.

(4) 성전을 위해 추가로 바쳤다(34 - 35절)

이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는 신앙고백입니다.

(5) 첫 아들(새끼, 열매)을 하나님께 바쳤다(36절)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십일조를 바쳤다

이 같은 삶의 스타일은 청지기 삶의 모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언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모든 것보다 우선했습니까?

결혼, 사업, 주일성수, 이웃 사랑, 소득의 십일조 등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성경의 표준대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 변치 않고 이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영적 변화를 일으킬 뿐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5 홍해작전 승전감사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20일간 기도와 말씀의 대장정으로 이어온 2005 홍해작전 승전을 감사하는 시간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이 시간에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와 아멘 관현악단이 승전 감사 특순을 갖는다.

한편 홍해작전 본부(참모장: 김영준 장로)는 홍해작전 동안 응모한 홍해작전 4행시를 마감하고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홍해작전 4행시는 138명의 성도가 응모하였고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 장원: 김성경 학생(유년부3) 백영자 집사(7교구)
- 믿음상: 유은철 성도 (6교구)
- 소망상: 오충례 권사(2교구)
- 사랑상: 정애신 집사(11교구)
- 화평상: 이주희(12교구) 나미용(12교구) 최정민(3교구) 김동진(13교구) 최광성(12교구) 최혜진(14교구)

(장원)

김성경 학생(유년부3)

홍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해 해가 저물 때까지 우릴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작 작은 소망도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전 전 능하신 우리 하나님

백영자 집사(7교구)

홍 홍해를 가른 것도 기도이고요
 해 해를 멈춘 것도 기도이지요
 작 작렬하는 태양을 덮은 것도 기도입니다
 전 전 서울교회 성도는 홍해작전의 기도의 능력을 믿어오

2005 농촌전도대 파송 한다

8월9일(화)-12일(금) 강원도 영월군 주천제일교회로

우리교회 전도위원회(위원장 윤찬오 장로)는 2005년도 농촌전도대원을 파송하기로 하였다. 2005년도 농촌전도대는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에 소재한 주천제일교회(통합, 담임 정연승 목사)로 파송된다.

금번 농촌전도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문

화' 주제 찬송은 271장(익은 곡식 거둔 자가)이며 현재 60명을 파송할 계획으로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2005년 농촌 전도대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역 복음화에 거름이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 되 60명 이상일 경우 선착순 직능별로 선발한다.

성경 필사 이미 1000명 이상 참가

해외 성도들 필사 요청에 원고 송부개시 반쪽 또는 일부 필사도 허용

예배당 헌당을 기념하여 봉헌키로 한 "서울 압송 필사 성경"이 7월 말 1차 필사 완료로 목표하고 있으며 이미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참가하여 서울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의 열기를 뽐내고 있다. 특히, 지난 주간에는 LA를 비롯한 해외 주제 성도들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 송부를 개시하고 이번 주간에도 신청을 받아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 원고를 송부할 계획이다.

이울러 동 위원회는 연로하신 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반쪽 또는 일부 필사를 허용키로 하고 금주 중 교구 별로 별도 신청을 접수한다고 한

다. 중·고등부를 비롯한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차주부터 본격적으로 필사에 참가하여 막바지 필사에 힘을 보탤 예정이며, 축쇄판 성경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 작업도 지난 토요일부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성경 표지 제작을 위한 토의를 마치고 표지 도안 및 그래픽 작업을 위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필사 위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선교사 선발 면접

27일(월)-28일(화) 양일간

교회는 세계복음화의 실현을 위해 2010년까지 선교사 100명 이상 파송을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며 1차 선교사 선발을 내일과 모레 이들 동안 실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발되어 파송될 선교사들의 파송 규정을 확정하였다.

서울교회를 통하여 세계 각국에 복음이 전파되며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없도록 수고하게 될 선교사들의 선발을 위해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바란다.

제1기 세계선교대학 수료식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10주 동안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고 공부하여 온 세계선교대학 1기 과정이 지난 22일(목) 모든 학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수료식을 갖는다.

제1기 세계선교대학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곽 숙 권은주 김규순 김규태 김미희 김수련 김신영 김영식 김영주 김영희 김주현 김찬진 남태순 노문환 노창훈 문형순 박길순 박두호 박우옥 박우주 박진희 박현영 백경원 서경애 서명철 소선자 송혜숙 신용식 신은미 양호경 오길탁 오승민 오유식 오정수 왕경래 우지원 원용범 원정연 유관모 유기찬 유승순 유을상 유한영 윤용미 윤찬오 은기장 이갑진 이광열 이규정 이난화 이남성 이복규 이승준 이양철 이영기 이영숙 이영희 이자혁 이찬호 이화용 장양일 장정화 전용순 전하미 정동학 정동호 정창빈 정희정 조정식 주미영 주화인 진 돈 최규초 최길옥 최낙준 최소희 최진경 최형열 하인선 한명순 한선현 홍승자 황선희

(이상 83명)

신약개론 중국어판 출판되다

이준원 목사가 저술한 신약개론(개혁주의 신행협회)이 중국어로 번역 출판되어 신학교 교재로 사용된다. 이 책은 1988년에 출판되어 지금까지 국내 많은 신학대학원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중국신학교육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2005 동해작전

동해, 사도신경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모(母)교회

장윤기 · 노애리 · 장애라 가정(동일교회)

서울교회가 세워진지 8년하고도 몇 개월 되던 해, 우리 집 다음으로 많이 자고, 출입했던 이곳을 2000년 3월 결혼과 함께 떠났고, 내게는 대신 남편과 시댁에서 대대로 섬기던 다른 교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색한 다른 교회는 이제 내게 "우리교회..."가 되었으며 서울교회는 항상 그리운 친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 2003년, 2005년. 사랑하는 모교회의 동해를 건넌 해입니다.

첫해에는 둘이서 그 다음에는 셋이서 올 때는 셋이서 올 때까지 넷이서.

기억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동해를 건널 적에 이유를 달 틈도 잠시만 하고 지체할 이유도 바쁘다는 이유도 어리다는 이유도 줄여서 동해를 건넌다 말고 자야 한다는 이유도 그 어떤 것도 생각할 겨를 없이 '떼지어' 건넌음을 '무조건적'으로 건넌음을 '다함께' 건넌음을...

이번에도 그렇게 그 마음으로 건넌습니다. 집이 멀어지고 남편의 직장은 1년 중 가장 바빠 2-3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없었고 나는 임신이



후 운전하는 것과 차타는 것이 버거울 정도의 체력이어서 그 이른 새벽부터 5살 딸아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할 것을 생각하니 정말 아득했습니다. 첫날을 참여하고 주말에만 참여하자...라는 마음이었는데 점차로 이종운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다함께'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서울교인들 예겐 공포의 6월...이라고 하며 동해를 건넌 예전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포(?)를 이겨내고 다 지나왔을 때는 항상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전해 받은 신앙의 모습을 이제 막 커가는 딸아이와 뱃속의 아이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기고 책임 있게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뜸하게 와지는 친정 서울교회이지만 이제는 다교인으로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족과 함께 동해를 건너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6월 한 달 만도 스무 번이나 와서 사도신경 강론으로 예배하며 교제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저를 키워 시집 보낸 서울교회의 이름이 주님 앞에 영광 돌려지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아름다운 유산을 날로 쌓아가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공포의 6월을 즐거이 기다리며 건너겠습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친정 교회가 오는 11월 27일 헌당을 한다고 합니다. 동해작전이 끝나고 출산을 앞두고 한동안 오기 어렵겠지만 영광스런 그 날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모교회 서울교회!

만민에게 전도

제13차 KIMCHI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신학세미나를 준비하며...



이영기장로(선교위원장)

주의 크신 은혜로 제13차 김치세미나가 7월 5일부터 10일까지 세계개혁신학회 6차 회의로 전 세계 18개국 100여명의 저명한 신학자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서울교회에서 열릴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김치신학세미나는 세계선교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이미 세계로잔위원회의 인정을 받았고 외국의 교회지도자와 신학자들을 초청하여 상호신앙과 신학에 큰 영향을 끼친 신학세미나로 지금까지 81개국에서 5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세계복음화, 교회의 천국화와 문화의 기독교화가 이루



어저 주의 복음이 지구촌 곳곳에 확산되기 위해서 그 어느 시대보다 먼저 신학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갱신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금번 김치신학세미나는 참석한 모든 회원들의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8번의 주제별 강론과 토의를 통하여 영적갱신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의사역

에 헌신하는 모습을 참가자에게 보여주므로 자국의 복음화에 큰 기폭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13차 김치세미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에 크게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회의는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의 정체성, 종교적 배경에서의 정체성등의 주제가 집중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기독교 전통과 문화를 보여드릴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치신학세미나를 위하여 서울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물질적 후원과 헌신으로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기록되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며 나아가 우리나라와 세계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의 사실의 역할을 감당하는 서울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경으로 건너다!

홍해를 건넌 나의 자녀들!

경은속 집사(1교구)

처음 홍해작전을 앞 두고 홍해작전에 참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절실한 마음이 없었다. 남편이 늘 새벽에 출근하고 항상 늦은 시간에 잠들게 되는 생활 때문이기도 했지만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 더 정확한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날짜가 다가오면서 홍해작전에 꼭 참여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요즘 세태를 보면 정의가 무엇인지 죄악이 무엇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도록 혼탁하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너무 많다. 말을 냈가까지 끌고 올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게 하지는 못한다는 옛말처럼 좋은 말로 가르치고 교훈해도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한다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영혼을 감화 시키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기에 내 자녀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나 대한 모습으로 기도생활을 게을리 했던 내게 하나님께서는 홍해작전이라는 기도의 장을 열



어 기도하도록 강하게 이끌어 주셨다.

어미 된 자로서 당연히 기도해야 할 것이지만 아이들도 자신의 장애와 꿈을 위해 함께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혜인이와 호세아에게 홍해작전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유하게 되었다. 혜인은 홍해작전에 개근한 경험

이 있어서 참여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작은 아이 호세아는 아침잠이 많아 학교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도 힘겨워 하였기에 거부할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순순히 참여하겠다고 대답하여 내심 놀랐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마음 또한 움직여 주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모태신앙의 경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이번 특별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사도신경으로 홍해를 건너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지난 주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구하기만을 기다리신다는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

청각장애인들의

홍해가 열리길...

신태봉 집사(에바다부)



남들처럼 설교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없다는 어려움이 언제나 저에게는 서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애 굶에서 종살이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잘 듣지 못하는 나에게 서울교회와 기적 같은 만남을 허락하셨고 또한 에바다부를 알게 하셔서 수화예배를 드리며 설교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닌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홍해작전 새벽예배 때에도 설교말씀을 통역해 주시는 세심한 헌신의 손길로 찬송으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시작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번 홍해작전 때에는 하루도 물에 빠지지 않고 다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도신경 강해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청각 장애인으로서 교회행사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번 서울교회 홍해작전을 통하여 온 교회와 함께 5가지 합심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창립14주년 기념행사로 성경필사에도 참여함으로써 나도 서울교회 성도로서 감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만 은혜 받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교회와 나라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만민에게 전도

뜨겁게 준비하고 있는 단기 선교단

동아시아 단기선교단 파송이 8월초로 다가왔다. 대학·청년부원들로 구성된 이번 단기선교단은 7박 8일 일정으로 동아시아의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선교사의 사역을 지원하고 여름성경학교와 찬양 집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교회 헌당식이 있는 올해 단기선교단은 전액 자비량으로 이 일정에 동참하게 되며, 서명철 목사와 홍성주 장로, 이양철 집사, 정동호 집사를 제외한 모든 단원들이 대학, 청년부 소속인 것이 이채롭다.

단기선교단은 매주 목요일 저녁 10주 과정으로 열리는 선교대학에서 세계 각국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님들의 특강을 들으며 기본 훈련을 하고 있으며, 지난 23일 목요일 저녁에는 철야 기도회를 갖기도 하였다. 손재영 선생을 중심으로 여름성경학교와 찬양집회 인도 준비에도 완벽을 기하고 있다.

공개적인 노방전도나 외국인 목사의 설교가 전면 금지된 곳으로 파송될 이번 단기선교단은

서울교회가 파송한 홍선교사님의 현지 사역을 돕고, 장기선교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선교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보다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탐색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안 관계상 파송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불가하며, 현지 선교사로부터 날아오는 이메일도 검열을 받는 상태라고 한다. 외국선교팀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이어서 예년과 달리 이미용선교와 의료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복음의 황무지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땅 끝일 터,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지상명령을 듣고 떠나는 28명의 젊은 단기선교단을 위하여 온 성도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소정(편집부)

호국의달특집

하나님은 북한 주민을 버리지 않으셨다



미국 부시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백악관을 방문하고 돌아온 우리교회 디아스포라부의 강철환 성도가 백악관 방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지난 21일 이종운 목사님을 찾았다.

강철환 성도의 백악관 방문은 그의 저서 "평양의 수족관"을 읽은 부시 대통령이 저자를 초청하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현재 조선일보 통한연구소 기자로 재직 중인 강철환 성도의 수기 "평양의 수족관"은 그가 유년시절 할아버지가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어 함경남도 요덕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후 10년간의 수용소 체험을 담은 것이다. "평양의 수족관"은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잡혀온 8000여명의 수용자들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노동과 폭

행, 굶주림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 그리고 공개처형 등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수용소내의 인권유린 실태와 참상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것으로 부시 대통령은 지인의 소개로 그 책을 읽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강철환 성도는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책을 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북한 인민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1992년 탈북한 강철환 성도는 자신이 한국에 온 것은 수용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함이었고 수용소의 참상을 국제사회가 너무 모르는 것에 심한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과 40여 분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북한의 핵문제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했다. '지금 세계는 북한의 핵 보유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인민들의 생존 문제며 저들의 인권 문제는 살아야만 하는 생존권에 비하면 오히려 사치스러운 것이라'는 이종운 목사님의 지적에 대해 강철환 성도는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부시 대통령과의 이번 만남이 한국에 온 탈북자들, 수십만 북한 정치범들, 나아가 전 북한 인민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될 수 있다면 자신은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했다.

강철환 성도의 이와 같은 보고를 들은 이종운 목사님은 그에게 "더욱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유익하게 사용하라. 초심을 잃지 말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으로 살라. 하나님은 준비된 자와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앞으로 어떤 자리에 가든지 신앙적 자세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라. 앞으로도 북한 연구에 더욱 매진하며 이 민족의 희망은 교회에 있음을 잊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호국의 달 6월을 보내며 우리는 기독교인의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허숙(편집부)



호국의달특집

나의 생명, 나의 조국을 살려주신 하나님

이덕빈 집사(6교구)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인 1950년 여름, 북한군은 38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을 했다.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한 북한군은 두 달도 안 돼 경상북도 대구 부근의 낙동강 방어선까지 내려왔다. 당시 내 나이는 25살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청년 장교였다. 내가 소속된 국군 제1사단은 북한군에 맞서서 대구 북쪽에 위치한 다부동 마을을 전장으로 55일간의 혈전을 벌였다. 이 전투가 바로 6.25 전쟁 중 최대 격전으로 꼽히는 <다부동 전투>였다.

북한군은 8월 15일까지 대구를 점령하기 위해 2만 명이 넘는 병력과 전차를 앞세워 남하하고 있었다. 이들이 대구로 들어오려면 <북곡>이라는 골짜기를 통한 진입로가 거의 유일한

길이였다. 8월 13일 새벽, 소대원을 이끌고 <북곡>인근을 지키고 있었던 나는 전차를 앞세워 진입해 오는 적 보병들을 목격했다. 나는 소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전차를 통과시킨 다음 뒤따라오는 적 보병에게 기습사격을 퍼부어 섬멸시켰다.

그 뒤 우리 대대는 증강된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운 적의 계속된 공격에 맞서 연일 맹렬한 방어사격을 집중시켰다. 또 수류탄을 움켜쥔 특공대원들이 적의 전차로 뛰어들어 전차의 행진을 저지시키는 등 목숨을 바치는 필사적인 저지를 며칠간 계속했다. 마침내 북한군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 채 공격 기세가 꺾였고,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퇴각을 했다.

55일간의 피비린내 나는 <다부동 전투>를 통해 하나님은 조국을 지켜주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 자신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수

없이 죽음에도 직면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뿐만 아니라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풍전등화의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을 주셨고, 치열한 전투에서도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조국을 위해 몸을 던지는 담대함을 주셨다. 6.25기념일 때마다 나는 이렇게 조국과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성경암송, 필사 참가일정표

(A조: 1~7교구, 장소: 402호)

(B조: 8~14교구, 장소: 202호)

	6/27(월)	6/28(화)	6/29(수)	6/30(목)	7/1(금)	7/2(토)
1부 (오전9시~ 오전10시)	이영희(3) 박영숙(3) 박영숙(5) 최경자(7) 김정숙(5) 이희영(1) 정승자(1) 김정옥(1) 김지희(1)	유지현(1) 김지희(1) 이윤정(1)		김경희(1) 정유선(2) 강윤영(2) 강택근(2)	이신정(2) 고윤화(4) 김성연(4)	박형수(1) 이경화(1)
2부 (오후2시~ 오후5시)	송인걸(3) 최효선(1)		이윤영(5) 최진경(대) 최일준(6) 김효준(6) 윤금자(2) 한금희(6) 송상준(6) 김수연(6) 최경애(6) 김진숙(7) 박소연(7) 박진양(7) 윤윤(3) 김교은(1) 이덕민(1) 사대식(2)	신금전(2) 안진선(2) 황선숙(2) 윤금자(2) 최정환(2) 이자혁(2)	이수현(1)	김상열(6) 노정숙(6) 하정자(6) 강일광(6) 신민숙(6) 우유명(6) 김운자(6) 박정금(7) 한선현(1) 한성재(대) 박두용(2) 이건모(3)
3부 (오후7시~ 오후10시)	류충기(5)	박일광(5) 김형원(5) 김경아(3) 김성숙(1) 이경희(3)	이석빈(1) 최애순(1) 이미경(1) 김영숙(1) 이근원(1)	박경옥(2)	안재희(청) 최금희(5) 백송희(청) 남정숙(5) 김수행(7) 홍성근(7) 홍비지라(7) 홍누리(7) 원정식(7) 김영혜(7) 백남운(1)	정해민(4) 최광태(4) 최종희(4) 김지옥(4중) 최영자(4) 최광혁(5) 송성훈(5) 안경모(5) 양준경(1) 김지희(1) 백경원(5)

	6/27(월)	6/28(화)	6/29(수)	6/30(목)	7/1(금)	7/2(토)	
1부 (오전9시~ 오전10시)	김신애(13) 김자경(13) 최희숙(13) 우경애(13) 박정선(13) 박정숙(13) 박선희(13) 이호정(13) 정영미(10) 김명희(13) 김은희(13) 백난희(13) 원세경(14)	김미선(11) 김개영(11) 황지은(13) 진교숙(13) 박희희(13) 박명자(13) 정효자(13) 안정옥(13) 서정여(13) 박미경(13) 박 옥(13) 양호선(13) 박윤옥(13)	박춘자(13) 백영란(13) 김신숙(13) 김장성(13) 황난옥(13) 박춘숙(13) 이보람(청)	오정숙(13) 권은주(13) 정진영(14) 김 옥(13)	이미송(13) 유슬기(13) 김미성(13) 김정미(13) 양미정(13) 이순금(13) 박용래(13) 김주현(13)	최정희(청) 박준희(청) 전용천(청) 김원준(11) 김규호(13) 이순금(13) 박용래(13) 송은진(청)	
2부 (오후2시~ 오후5시)	김근남(13) 한은경(13) 양호경(13) 이미혜(13) 진혜진(청) 이주연(청)	김근주(13) 최인수(9) 고완순(9) 심재울(14) 원정연(청)	박미숙(13) 이정아(13) 최정숙(9) 최경미(13) 남현주(13)		한민아(고) 한상원(중) 이신정(2) 신금전(2) 권신익(10) 이혜선(10)	이상원(청) 이행민(대) 박계원(대) 박성민(12) 나미용(12) 정한선(13) 이주희(12) 김용호(12) 홍희순(12) 문정원(13) 노희준(13) 노희수(13) 권정환(10) 윤영민(10) 권수정(10) 윤준호(10) 김경자(14) 허우경(14) 오혜진(청) 장은규(청)	
3부 (오후7시~ 오후10시)	양은정(대) 김주희(대) 이지민(고) 이미숙(11) 김경미(14) 박찬미(청) 손영희(청) 이교은(대) 백경원(청) 이주연(청) 조동희(청) 최지혜(청) 이화용(청) 송은정(청)	김정훈(11) 윤동수(13) 권신영(6) 최정운(청)	이순복(13) 이지민(고) 이지현(고) 가원정(9) 이민선(11) 송영준(11) 이교은(대) 백경원(청) 이주연(청) 조동희(청) 최지혜(청) 이화용(청) 송은정(청) 김수현(청)	유승윤(13) 편미숙(13) 김영태(14) 박병욱(14) 양재인(10) 조동협(대) 오세현(청) 김지홍(청) 김태봉(청) 노창훈(청) 백송희(청)	이근형(13) 권정우(13) 권민정(13) 김도훈(13) 한정우(10) 김미애(13) 김광훈(13) 김한나(13) 김문상(13)	이근형(13) 권정우(13) 권민정(13) 김도훈(13) 한정우(10) 김미애(13) 김광훈(13) 김한나(13) 김문상(13)	이근형(13) 권정우(13) 권민정(13) 김도훈(13) 한정우(10) 김미애(13) 김광훈(13) 김한나(13) 김문상(13)

제30회 기독교 학술원
공개강연회

-6월30일(목) 이종운 목사 발표-

기독교 학술원 제30회 공개 강연회가 한국 교회 기독교 100주년 기념과 소강당에서 6월30일(목) 오후 3시부터 이종운 목사와 김성영 박사를 강사로 '한국교회의 영성신학 이대로 좋는가'라는 주제로 열린다.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건전한 영성신학의 방향이 제시될 이번 공개 강연회에 우리교회 성도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30일(목) 총회 주제위원회를 소집 발표한다. 또한 기독교 학술원 공개 강연회에서 논문을 발표한다.
- 득남: 강호준, 이소은 성도(6교구)
- 전화번호 변경: 김운호 목사 010-2896-8291
- 이사: 송인순 권사 용인 구성 상하리 강남마을 주공아파트
- 김성준 집사 김성영 집사(12교구) 성남시 수정구 삼곡동 T.031-751-2962

- 공성호 박은주 성도(11교구) 가락분동 16-5 잠실맨션 T.016-793-3233
- 선임: 무지개회 회장으로 김경희 권사가 선임되었다.
- 주간식당봉사: 빌립남선교회(6월26일) 안드레 남선교회(7월3일)
- 금주의 식사: 한공수 집사 박춘자 권사 손성운 집사 김숙자 권사 가정-자녀결혼 감사하며

김치세미나 위원 추가 임명

- 홍보분과: 김민철 허숙
- 봉사분과: 김영식, 김신영, 김혜란, 안경옥, 김명희, 양경실, 한혜경
- 안내분과: 제오복, 나연신
- 통역분과: 이윤재, 임연주,

김희옥, 손명근, 김운근

나눔의 집 기증품 접수

나눔의 집 기증품을 계속 접수하고 있다. 가정에서 사용치 않는 의류 등을 교회에 기증하면 선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BS(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을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3차 김치신학세미나가 은혜 중에 진행되도록
2. 새로 번역된 주기도·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세계를 교구로 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되도록
4. 서울 양승·필사성경 제작이 순조롭도록
5. 북한의 핵문제 전쟁없이 해결되도록

예배 및 회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서백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오시는 길

